

새 책 소개 \_ 시그림책

풀꽃

온 국민의 애송시 <풀꽃>,  
그림책으로 피어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?



나태주 시, 문도연 구성·그림

기죽지 말고 살아봐  
꽃 피워봐  
참 좋아.

-<풀꽃>3 전문-

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모두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'풀꽃'들의 이야기

나태주 시, 문도연 구성·그림 | 175\*230mm | 양장 36쪽 | 책값 : 16,800원 | ISBN : 979-11-92102-53-5 | 펴낸 날 2026년 4월 27일 | 펴낸 곳 : 이야기꽃 |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초로66, B동312호 | 070-8797-1656 편집담당 : 김장성 주간 | 010-5294-5365 | [iyagikot@naver.com](mailto:iyagikot@naver.com)

소통, 공감, 평화! 함께 피우는 이야기꽃 · [iyagikot.com](http://iyagikot.com)



## 작품 소개

그림책으로 피어난 <풀꽃> 연작시

자세히 보아야  
예쁘다

오래 보아야  
사랑스럽다

너도 그렇다.



-<풀꽃>1 전문

시를 읽지 않는 이들도 다 알 만큼 친숙한 온 국민의 애송시입니다. 무엇이 이 시를 것처럼 널리 사랑받게 하는 걸까요?

시인이 초등학교 재직 시절 풀꽃 그리기 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이 그대로 시가 되었다는 창작담처럼,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말로 모두를 다독이면서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소중한 태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겠지요.

시인은 이 시에 뒤를 이어 “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/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/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/ 아, 이것은 비밀”이라며 관계맺음에 대한 통찰을 담은 <풀꽃>2와 “기죽지 말고 살아봐 / 꽃 피워봐 / 참 좋아.”라며 움츠린 영혼들을 격려하는 <풀꽃>3을 써서 <풀꽃> 연작시를 마무리했습니다.

시가 주는 그 위로와 격려, 통찰과 깨달음을 그림책으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? 그림책 《걸어요》(문도연 지음)와 《강물과 나는》(나태주 시, 문도연 그림)을 통해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과 자연을 어루만져 온 문도연 작가가 시의 행간에 이야기를 그려 넣었습니다.

### 풀꽃처럼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 《풀꽃》

#### <풀꽃>1의 이야기

책장을 열면, <풀꽃>1이 쓰인 그때처럼 풀꽃을 그리는 아이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. 우리 반 김하늘 // 우리 반 한바다 // 우리 반 노윤서, 정빛나, 최고은... 아이들은 봄 들판의 풀꽃처럼 점점이 또는 웅기종기, 저마다의 꽃들을 들여다보고 냄새 맡으며 그림으로 그립니다.

이윽고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자랑하듯 선생님께 그림을 내미는데, 화단 귀퉁이에 한 아이 “우리 반 이하나” 혼자 얼굴이 발개진 채 그림을 꼭 안고 쪼그려앉아 있습니다. 아이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독백일까요? 아이와 선생님의 시선 사이에 시가 흐릅니다. **자세히 보아야 / 예쁘다 // 오래 보아야 / 사랑스럽다 // 너도 그렇다.**

#### <풀꽃>2의 이야기

교실로 돌아온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각자의 이름표가 붙은 솜씨자랑판에 그림을 붙이는데, 이 하나는 책상 위에 놓인 그림을 두 손으로 가리고 있습니다. 이어진 체육시간,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운동장 가 모래밭에서 어울려 놀 때,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혼자 노는 아이는 여전히 이하나.

하지만 책장을 넘기자, 하나는 이제 하나 아닌 둘, 한바다가 함께 철봉에 매달려 뭐라 말을 겁니다.  
*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*

다음 장면에선 다섯, 박시우, 김도영, 이지은이 합세해 재잘거립니다. *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,*

친구가 된 아이들은 철봉을 내려와 꽃반지를 만들고 놀지요. *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.*

그리고 하나의 손가락에 꽃반지를 매어주는 도영이. *아, 이것은 비밀.*

### <풀꽃>3의 이야기

다음 장면에서 하나는 꽃반지를 코에 대고 향기를 맡고 있는데, 향기가 전한 것이 이런 말일까요?  
*기죽지 말고 살아봐 / 꽃 피워봐.*

이윽고 마지막 장, 하나는 그림을 들고 솜씨자랑판 자신의 이름표 앞에 서 있습니다. 아이들과 선생님, 시인과 화가, 모두가 하나를 향해 외치는 듯합니다. *참 좋아.*

시인이 아이들에게 준 위로와 격려, 통찰과 깨달음이 화가가 아이들 속에서 발견한 이야기와 어울려 한 편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림책이 되었습니다. 추위와 바람을 이겨내고 올망졸망 피어나는 풀꽃들처럼, 꼭 풀꽃 같은 아이들처럼. 시와 이야기와 그림책, 그 향기 그 빛깔이 있어 살 만한 세상입니다.

### 작가 소개

**시인 나태주** : 194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습니다. 1963년 공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43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며, 퇴임 후 공주문화원장과 한국시인협회장을 지냈습니다. 지금은 공주풀꽃문학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나라 곳곳으로 독자들을 만나러 다닙니다. 시 수천 편을 썼고, 시집 수십 권과 산문집, 동화집, 시화집 여러 권을 냈습니다.

**화가 문도연** :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.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Hills에서 그림책을 공부했습니다. 작품으로 쓰고 그린 그림책 《걸어요》, 나태주 시인과 함께 만든그림책 《강물과 나는》이 있습니다. 이 그림책은 나태주 시인의 대표작 <풀꽃> 1,2,3으로 만들었습니다.

### 그리고

책을 만드는 데에 춘천서상초등학교 오은주 선생님과 김도현, 김세인, 김하주, 원아란, 이서아, 이소윤, 이시윤, 이하람, 이하원, 정진, 최별, 한도운 어린이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.

